

AUTHOR 김재성 (Jae Sung Kim)

TITLE 칼빈 신학의 구조적 특성 (1)
(A study of Structure in Calvin's Theology)

IN 신학정론(Journal of Reformed Theology)
vol.11 no.2 (November, 1993):419-439

미아스를 따라서 마태복음 5:3-20을 두 가지로 분할 하기도 한다.
즉 5:3-12, 13-16절을 엑소디움(Exodus)으로, 5:17-20을 주제
(proposition)로 보는 것이다.⁵⁸⁾

칼빈 신학의 구조적 특성(I)

김재성
<전임강사·조직신학>

서 론

칼빈의 신학은 수많은 신학자들에 의해 매우 다양한 해석들로 범
람하고 있다. 아마 가장 난해한 문제중의 하나로 생각할 만큼 되어
버렸다. 지난 400여년간 칼빈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그의 신학의
핵심으로 예정론, 하나님의 주권, 기독론, 설리론, 하나님에 의한
칭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을 발견한다.¹⁾

1) Belda Vassady, *The Main Traits of Calvin's Theology* (Grand Rapids:Eerdmans, 1951), pp. 9-15. John T. McNeill, "Fifty Years of Calvin Study," in Williston Walker, *John Calvin:the Organiser of Reformed Protestantism, 1509-1564* (1906; New York:Schocken Books, 1969), xvii-lxxvii. William H. Neuser, "Calvin Studies:A Review, The Work of the Calvin Congress and Their Future Tasks and Goals," in *Calvin Studies V.* ed.

58) J.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I-IX*(AB 28, Garden City:Doubleday, 1981), pp. 628-629. 참고. O. Hansen, "Zum Verstandnis des Bergpredigt," in der Reef Jesu und die Antwort der Gemeinde(ed. E. Lohse:Gottingen:Vandenhoeck and Ruprecht, 1970), pp. 94-111; C.Burchard, "The Theme of the Sermon on the Mount," in *Ersays on the Love Commandment*(ed. R.H. Fuller, Philadelphia:Fortress Press, 1978); N.J. McEleney, "The Principles of the Sermon of Mount" CBQ 41(1979) 552-70; J. Lambrecht, *The Sermon on the Mount: Proclamation and Exhortation*, *Good News Studies* 14 (Wilmington, DE: Glazier, 1985). pp. 26-29; G. Bornkamm, "Der Aufbau der Bergpredigt," NTS 24(1978) 419-32; R.H. Guelich, *The Sermon on the Mount: A Foundation for understanding* (Waco, TX:Word, 1982), pp. 323-325.

그러나, 여전히 이것이 칼빈신학의 핵심이라고 의견의 일치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번에 걸쳐 쓰게될 이 논문은 몇 가지의 주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첫번째로, 요한 칼빈의 신학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며 요약해 보므로서 그의 신학의 특성을 이해하려고 한다. 많은 칼빈연구물들이 발표되어 오고 있음에도 정작 그의 신학의 특성을 개괄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각론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다. 과연 무엇이 그의 신학의 주요 쟁점들이었나를 살펴보면서 동시에 칼빈의 신학적 구조와 그의 신학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통해서 개혁신학의 첫 세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두번째 목표는 과연 그의 신학에 새로운 발전이나 진보가 있었느냐는 문제다. 특히 그의 신학방법론과 성서해석의 방법론을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려고 한다. 이는 다음 편에 쓰여질 2부에서 중점적으로 거론하고자 한다.

칼빈의 신학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신탁이나, 천재가 발견한 법칙이나 공식이 아니었다. 16세기의 시대적 상황이라는 조명하에서 비춰볼 때에만 그의 신학의 면모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²⁾ 칼빈의 신학은 그의 학문과 발전과정 속에서, 그가 섭렵한 저술들과의 대화 속에서, 성경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다. 즉, 많은 칼빈연구가들이 이미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마틴 루터, 부서, 멜랑히톤, 오클럽 파디우스, 블린저, 에라스무스, 즈윙글리, 화렐, 그밖에 그의 저술들에서 인용되고 있으나 이름이 널리 알려있지 않은 수백명에 달하는 초대 교부들과 중세 신학자들, 특히 어거스틴과 크리스토크 등의 영향하에서 형성되고 더욱 발전된

by John H. Leith (Davidson College, 1990), pp. 21-27.

2) William Bouwsma, *John Calvin:A Sixteenth-Century Portrait* (New York:Oxford University Press, 1988). 이 최근의 전기는 지성사의 흐름에서 칼빈을 이해하려고 시도된 훌륭한 연구업적으로 손꼽히고 있으나, 지나치게 심리분석을 시도한 점과 난해한 문장등이 약점이다.

것이다.³⁾

그러나, 다른 신학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과 비범함을 지닌 조직적인 신학자로서의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다. 만일 우리가 칼빈의 신학을 16세기의 다른 학자들과 비교 연구해 본다면, 당시에는 별로 내세울만하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신학(systematic theology)이 칼빈 이외에는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칼빈의 저술 이전에 출판된 조직적인 개신교의 신학교과서로서는 멜랑히톤(P. Melanchthon)의 *Loci Communis*(공동과목)가 1521년에 출판된 정도였다. 1525년에 콩왕글리(U. Zwingli)의 *Commentary on the True and False Religion*(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에 대한 해설)이 나왔다. 칼빈을 제네바에 초대한 윌리엄 파렐의 *Sommaire*(개론)라는 교재도 같은 해에 출판되었다. 이들 제1세대의 개혁자들의 저술은 그 체계나 부피에 있어서 칼빈의 기독교강요에 비교할 수 없었다.

1536년에 출판된 칼빈의 기독교강요는 놀라운 조직과 방대한 체제를 갖춘 교과서였다. 삽시간에 그의 명성을 전 유럽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더구나 칼빈은 이를 지속적으로 개작하면서 수정을 가하고, 증보하여 1559년판에 이르면 4권 80장에 이르게 된다.

16세기 초엽에 파리에서 가장 침단에 이른 휴머니즘에 접하였고 오를레앙(Orleans) 법과대학, 부르쥬(Bourges) 대학등에서 섭렵한 휴머니즘의 해석학을 근거로 하여, 그의 우수한 기억력과 근면한 성경연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고대 교부들의 연구를 새롭게 추가할 수 있게 되어진다. 당대 유럽 최고의 법과대학에서 습득한 에라스무스의 해석방법에 도전할만큼, 칼빈은 이미 23세 때에 물샐틈없이 견고한 논증체계로 구성된 논문들을 펴낼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1532년에 출판된 『세네카의 관용론에 대한

3) David Curtis Steinmetz, "The Theology of Calvin and Calvinism," in *Reformation Europe:a guide to research*, ed. by Steven E. Ozment (St. Louis:Center for Reformation Research, 1982), pp. 211-232.

주석』은(Commentary on Seneca's De Clementia) 비록 흥행에서는 실패한 작품이었으나, 한 젊은 인문학도의 야심과 탁월함을 유감없이 보여준 수작이었다.

제1장 칼빈신학에 대한 해석들

1.1. 19세기까지의 칼빈 이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칼빈의 방대한 저술들의 핵심은 과연 무엇인가?

칼빈의 신학은 마치 “예정론”(predestination)이 전부이며, 이를 토대로 구성된 하나님의 주권(the sovereignty of God)이라는 대주제 하에 쓰여진 것으로 해석되어져 왔었다.⁴⁾

미국의 존 맥네일(John T. McNeill) 교수가 지적한 대로, 기독교 강요에는 “하나님의 주권”(sovereignty of God)이라는 용어조차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1536년판에는 예정론이 독립된 장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1559년 최종판 제3권 21장에 “영원한 선택”이라는 항목에 나타난 예정론에 대한 칼빈의 관심은 다른 논문

4) Richard A. Muller, *Christ and the Decree: Christology and Predestination in Reformed Theology from Calvin to Perkins*. Studies in Historical Theology 2 (Durham, N. C.: The Labyrinth Press, 1986), p. 17. 칼빈의 예정론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물들이 있다. Paul Jacobs, *Pradestination und Verantwortlichkeit bei Calvin* (Neukirchen:Neukirchen Verlag, 1937). Hans Otten, *Calvins theologische Anschauung von der Pradestination* (Munich:Kaiser, 1938). Jürgen Moltmann, *Pradestination und Perseveranz:Geschichte und Bedeutung der reformierten Lehre "de preseverantianorum"* (Neukirchen:Neukirchen Verlag, 1961), p. 37. 여기서 몰트만은 칼빈의 예정론에는 실체적 관심(praktische Interesse)과 종말론적 경향(die eschatologische Orientierung)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Fred H. Klooster, *Calvin's Doctrine of Predestination* (Grand Rapids:Baker, 1961).

들 가운데 들어있기는 하지만, “설리론”등의 다른 주제보다도 훨씬 더 비중을 두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교리사를 살펴보면, 예정론은 후기 개혁신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이었다. 16세기 후반의 칼빈의 후계자들, 특히 베자(Theodore Beza)가 스콜라신학의 방법론에 영향을 받아 칼빈의 신학을 정통신학으로 수호하면서 예정론을 신학의 핵심으로 강조하였다.⁵⁾

16세기 후반과 17세기는 후기 개혁신학자들에게 중세의 스콜라신학의 방법론이 많은 영향을 미치던 시대였다. 칼빈 사후 1, 2세대가 흐를 때에도 제네바와 남부독일, 화란 등에 흘러친 개혁사상의 후계자들은 종교개혁의 초기 신학자들을 이어서 개신교정통신학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예컨대, 하이델베르그에서 제롬 잔키우스(Jerom Zanchius) 등이 베자의 예정론을 높이고 이를 자주 강조하며 인용하였다.⁶⁾ 이 당시의 루터신학자들도 예정론에 심취하여 있음을 볼 수 있다.⁷⁾

19세기의 칼빈연구가들은 칼빈신학을 푸는 오직 하나님의 열쇠란 하나님의 주권사상과 예정론이라고 보았다. 1844년 알렉산더 슈바이策(Alexander Schweizer)의 연구에서도 여전히 이런 논지가

5) John Stanly Bray, “Theodore Beza's Doctrine of Predestination,” (Ph. D.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1972), pp. 64-110.

6) Ursinus, *Doctrinae christiana compedium sive commentarii* (1584). 이 책에서 저자는 설리와 예정론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다시 각론으로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 이 당시에 대한 연구로는 Derk Visser, *Zanchius Ursinus:the Reluctant Reformer, His Life and Times* (New York, 1983)을 볼 것.

7) Robert D. Preus, *The Theology of Post Reformation Lutheranism:A Study of theological Prolegomena* (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70). idem, *The Inspiration of Scripture:A Study of the Theology of the 17th Century Lutheran Dogmaticians* (Mankato, Minn.:Lutheran Synod Book Compay, 1955).

계승되고 있다.⁸⁾ 바우어(F. C. Baur)교수도 역시 칼빈의 신학의 핵심을 예정론으로 이해하였다.⁹⁾

19세기 말까지 칼빈의 라틴어 저술들을 직접 대하기가 어려웠고, 범람하는 자유주의 신학과 계몽주의 철학의 영향으로 칼빈신학에 대해 천편일률적으로 부정하려는 경향이 주조를 이루었던 시대였다.

20세기 초엽에 에른스트 트뢸취(Ernst Troeltsch), 웨버(Hans Emil Weber), 제베르그(Reinhold Seeberg), 릿츨(Otto Ritschl) 등도 역시 같은 이론의 주장자들이었다.¹⁰⁾

8) Alexander Schweizer, *Die Glaubenslehre der evangelisch-reformierten Kirche* (Zurich: Orell, Fussli und Comp. 1844), vol. 1, p. 69: "Calvin trifft...Instit. III. xiii. ist es ihm auch gottlose Frechheit, und der Pradestination zu zweifeln, die jedenfalls, wie sie gefasst ward, Gottes wurdig ist, ob uns noch so unergründlich. Auch er denkt das Böse nach Gottes freistem Entschluss mit in den Weltplan aufgenommen, von Gott beschlossen und fragt darum." p. 70: "Also auch Calvin, alles von Gottes determinirendem Rathschluss schlechthin abhangig fühlend, hält alle Einwürfe für Frevelhafte Unzufriedenheit mit Gottes Willen und Vorsehung, appellirt über unser Verständniss hinaus an die jedenfalls feststehende absolute Vollkommenheit Gottes." Gottes."

9) Ferdinand C. Baur, *Lehrbuch der christlichen Dogmengeschichte* (Stuttgart, 1847;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68), p. 303. 특히 각주 8)과 9)는 Francois Wendel, *Calvin: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tr. by Philip Mairet (New York: Harper & Row, 1963), p. 263, n. 100. 을 참고할 것.

10) Cornelius P. Venema, "The Twofold Nature of the Gospel in Calvin's Theology: The Duplex gratia Dei and the Interpretation of Calvin's Theology," (Ph.D. dissertation: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1985), pp. 4-6. Ernst Troeltsch, "Calvin and Calvinism," *Hibbert Journal* VII (1909/10): 106. Hans Emil Weber, *Reformation, Orthodoxie und Rationalismus*, 2 vols. (Gutersloh, 1937-51). Otto Ritschl, *Dogmengeschichte des Protestantismus*, 4 vols. (Lipzg and

에른스트 트뢸취(Ernst Troeltsch)가 제네바의 도덕성을 이룩한 칼빈의 노력을 위대한 사회의 진보라고 격찬을 제외하고는, 그의 칼빈 이해도 여전히 전통적인 해석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들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칼빈을 마치 인정없고 폐마른 교리중심의 신학자라는 이미지를 갖게 만들었다. 칼빈의 목회적인 심성이나 활동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예정만을 강조하여 인간의 패배주의, 운명론적 비관론을 갖게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미 구프린스턴의 조직신학자 워필드 박사가 이런 편견을 시정하려고 칼빈 탄생 400주년에 즈음하여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유럽에서 형성된 칼빈의 신학에 대한 선입견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았었다.¹¹⁾ 따라서 칼빈신학에 대한 논의 할 때마다, 위의 두가지 주제를 거론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왔으나 이제 까지의 구태의연한 선입견은 새로운 조명을 받아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칼빈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의 저술들과 수 천통에 달하는 편지, 설교, 신학논문과 제네바 교회 당회록 등을 살펴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칼빈의 원천을 통한 이해는 거의 없이 표피적인 해석들만이 널리 유포되었던 것이다.

Gottingen, 1902-27). 칼빈에 관한 부분은 제 3권 pp. 156-242를 볼 것.

11) 워필드 박사는 칼빈 탄생 400주년이 되던 1909년 한 해에 칼빈의 신학에 관한 8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미국 내에서 최초로 본격적인 칼빈연구의 서장을 열어놓았다. Benjamin B. Warfield, "John Calvin: The Man and His Work," *Methodist Review* 58 (1909) in *Calvin and Augustine*, ed. by Samuel G. Craig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1956), pp. 291-2.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is not the formative principle of Calvinism, the root from which it springs. It is one of its logical consequences, one of the branches which it has inevitably thrown out."

1.2. 20세기 중엽이후 다양해진 칼빈연구

영국의 칼빈학회가 그의 주석을 전부 영역하여 출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칼빈의 라틴어 전집이 출판되면서 20세기에 들어서자, 칼빈의 신학에 대한 재검증이 시도되면서 다양한 주장들이 펼쳐졌다. 특히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에 반기를 들고 종교개혁자들에 대해 깊이 연구한 칼 바르트(Karl Barth)의 영향으로 칼빈연구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바르트의 제자들이 학계를 좌우하면서부터는 칼빈해석은 더욱 다양해지게 되었다. 바르트의 지도하에서 스위스 바젤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토렌스, 다우이, 간접제자인 파커 등이 1980년대까지의 칼빈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놓았다. 이들은 각각 명문대학에서 강의를 맡았을 뿐만 아니라, 칼빈을 연구하는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였다.

영국 에딘버러 대학의 토렌스(T. F. Torrance) 교수는 “칼빈의 인간론”을 발표하여 주목을 끌었다. 또한 프린스턴의 다우이(E. A. Dowey) 교수와 영국 옥수포드의 파커(T. H. L. Parker) 교수등은 “칼빈의 하나님을 아는 자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독일의 위너 크루舍(W. Krusche)는 “칼빈의 성령론”을 발표하였고, 윌리스(David-Willis) 교수는 하바드 대학의 박사논문으로 “칼빈의 기독론”을 발표하였다. 밀러(Benjamin, C. Milner)는 “칼빈의 교회론”을 다시 조명하였다.¹²⁾

12) Benjamin C. Milner Jr. *Calvin's Doctrine of the Church* (Leiden:E. J. Brill, 1970), p. 2. Werner Krusche, *Das Wirken des Heiligen Geistes nach Calvin* (Berlin: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57). T. H. L. Parker, *Doctrine of the Knowledge of God A Study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 (Grand Rapids:Eerdmans, 1959). T. F. Torrance, *Calvin's Doctrine of Man* (Grand Rapids:Eerdmans, 1957). E. David Willis, *Calvin's Catholic Christology* (Leiden:E. J. Brill, 1966).

1.3. 20세기 후반의 칼빈연구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칼빈 신학을 풀어보는 만능키와 같은 하나의 원리를 찾는 일의 미하다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되었다. 일단의 칼빈 전문가들에 의하면 하나의 방법론을 가지고 칼빈의 체계를 분석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독일의 바우케(W. Bauke) 박사가 이를 맨 처음 주장하였다.¹³⁾

카톨릭 신학자로 칼빈연구의 일가를 이루고 있는 알렉산더 가녹지(Alexanre Ganoczy) 박사, 미국의 칼빈연구의 대가였던 베틀즈(Ford Lewis Battles) 박사,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바우스마(W. Bouswsma) 교수, 죠지아 주립대학의 암스트롱(B. G. Armstrong) 교수 등이다. 이들 최근의 칼빈 연구가들이 가장 깊이있게 칼빈의 신학을 분석한 분들이라고 본다.

이 최근의 연구업적들을 좀 더 세분하여 보면, 다시 두 부류의 경향이 나타난다.

1960년을 전후하여 주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영어권에서의 칼빈의 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베틀즈 박사의 노작으로 나온 칼빈의 기독교강요의 새로운 영어 번역본의 출간에 즈음하여, 칼빈연구가들은 크게 두 줄기로 나뉘어 진다.

한 그룹의 학자들은 개혁주의 신학자, 특히 장로교의 신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신학자로 칼빈을 이해하면서, 그의 사상을 정리함에 있어서 신학적 주제들을 중심으로 보려는 견해이다.¹⁴⁾

13) Hermann Bauke, *Die Probleme der Theologie Calvins* (Leipzig: J. C. Hinrichsschen, 1922), p. 2. Milner, *Calvin's Doctrine of Church*, p. 2. “Calvin's theology has no central teaching or basic doctrine out of which everything else could be derived.”

14) T. H. L. Parker, “Calvin the Exegete:Change and Development.” In *Calvinus Ecclesia Doctor*, ed. by W. H. Neuser (Kampen:Kok, 1980). pp. 33-46. Heiko A. Obermann, “Calvin critique Calvinists,” in *Christian Higher Education. The Contemporary Challenge* (Potchefstroom:The Institutue for the Advancement of Calvinism, 1976), pp. 372-381.

다른 그룹의 칼빈연구가들은 주로 16세기의 역사를 연구하는 순수한 역사학자, 또는 교회 사학자들로, 칼빈은 신학자로 규정되기 보다는 16세기의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접근해간다. 그가 처해있던 시대의 사회적, 역사적 환경을 통해서 그의 사상을 재구성한다는 새로운 이론을 제기한 것이다.¹⁵⁾

첫번째의 겸중방법과 같이, 칼빈이 다른 신학적인 주제들을 따져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새로운 두번째의 시각은 보다 면밀하게 그의 사상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고 있어서 매우 유익하다. 우리는 이 두가지 시각을 동시에 사용하여 칼빈의 면모를 바르게 해석하여야 하며, 그의 생애를 보다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장 칼빈신학의 근본원리

2.1. 二重的 知識(Duplex cognitio Dei)

칼빈 신학을 점검하려는 첫 단계에서, 우리는 참된 지식의 기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그의 출발점에 대하게 된다. 그 기초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지혜, 즉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⁶⁾ 칼빈은 그 다음 장에서도 초두에 “다시 말하면, 인간

15) William Bouwsma, “The Quest for the Historical Calvin,” *Archiv Fur Reformationsgeschichte* 77 (1986):47-57.

16)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s. 20-21, ed. by John T. McNeill, tr. by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Westminster, 1960), 1:35, 37. 칼빈의 기독교강요의 인용이나 번역은 모두 배틀즈 교수의 영역본에 기초하였다. 이하에서는 권, 장, 절의 순으로 표기한다. 한글번역은 필자 자신의 것임. *Institutes*, I.i.1. “Nearly all the wisdom we possess, that

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우리러 보고, 그 다음에 인간 자신에 대해서 명상하고 스스로를 면밀히 점검하는 데로 내려가지 않는 한, 자신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질 수 없음이 자명해진다.” 칼빈은 후에 더 분명한 논지를 펴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완전한 지식을 가지려면,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인간 자신에 대한 지식이 수반되어져야 한다.”¹⁷⁾

칼빈의 신학에 있어서 인식론적 기초를 이루고 있는 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지식은 그의 신학과 사상의 근본이 되고 있다. 칼빈학자들은 점점 이 주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며, 그의 신학에 있어서의 二重的 知識(Duplex cognitio Dei-Twofold knowledge of God)은 가장 핵심적이 되는 원리다.

미국 미시간에 소재한 웨스턴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였던 유진 오스터헤븐의 논문을 필두로 하여, 프린스턴의 다우이 교수와 제인 더글라스 교수, 펫츠버그 신학교와 노년에 칼빈신학교 교수였던 姑 휘드 루이스 베틀즈, 칼빈신학교의 칼빈센터 소장인 리차드 캠블, 영국 캠브리지의 토마스 파커, 미국 버지니아 유니온 신학교의 존 리이드 교수, 카나다 맥길 대학교의 맥클란드 교수, 스위스 씨리히의 뷔씨 등 쟁쟁한 칼빈 연구가들이 이중적 지식을 칼빈 신학의 핵심 구조로 파악하고 있다.¹⁸⁾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없는 것은 아니다.¹⁹⁾

is to say, true and sound wisdom, consists of two parts:the knowledge of God and of ourselves.”

17) Institutes, I.i.2. “Again, it is certain that man never achieves a clear knowledge of himself unless he has first look upon God’s face, and then descends from contemplating him to scrutinize himself.” Institutes, I.i.15. “We cannot have a clear and complete knowledge of God unless it is accompanied by a corresponding knowledge of ourselves.”

18) M. Eugene Osterhaven, “Our knowledge of God According to Calvin,” Princeton,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1948. T. H.L. Parker, *Doctrine of the Knowledge of God:A Study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 (Grand Rapids:Eerdmans, 1959). Richard C. Gamble, “Calvin as Theologian and Exegete: Is there anything new?” *Calvin Theological Journal* 23 (1988):

180. E. A. Dowey,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2). John Leith, "Calvin's Awareness of the Holy and the Enigma of His Theology," in In honour of John Calvin, 1509-1564, Papers from the 1986 International Calvin Symposium, McGill University, ed. by E. J. Furcha (Montreal:Faculty of Religious Studies, McGill University, 1987), p. 217. McLelland, "Renaissance in Theology:Calvin's 1536 Institutio-Fresh Start or False?" in In honour of John Calvin, p. 156. Jane D. Douglass, "The Image of God in Humanity:A Comparison of Calvin's Teaching in 1536 and 1559," in In honour of John Calvin, p. 177. F. L. Battles는 자신의 기독교강요 영역본의 각주에서 이중적 지식이야말로 칼빈의 완벽한 조직의 근간이라고 말한다. Institutes, vol. 1, p. 40, n. 3: "Duplex cognitio Dei- The distinction, twofold' knowledge is basic to the structure of the complete work. Calvin calls attention this repeatedly in a striking series of methodological statements, all added in 1559 to clarify the course of the argument." Battles 박사의 다른 논문들은 이 주제를 보다 더 분명하게 다루고 있다. "Calculus Fidei":Some Ruminations on the Structure of the Theology of John Calvin (Grand Rapids:Calvin Theological Seminary, 1978), p. 6. Battles, Analysis of the Institutes (Grand Rapids: Baker, 1980), p. 17. 국내 학자로는 신복윤 교수가 박사학위논문으로 칼빈의 이중적 지식을 집중연구하였고, 1993년 10월에 칼빈의 신학사상 (서울:성광문화사, 1993)을 출판하였다.
- 19) Brian G. Armstrong, "The Nature and Structure of Calvin's Thought according to the Institutes:Another Look," in John Calvin's "Institutes"- His Opus Magnum:Proceedings of the Second South African Congress for Calvin Research, ed. B. J. Van der Walt (Potchefstroom:Potchefstroom University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1986), pp. 55-81. 최근에 암스壯통 교수는 보다 강력한 반론을 편바 있다. "Duplex cognitio Dei, or the Problem and Relation of Structure, Form, and Purpose in Calvin's Theology," in Probing the Reformed Tradition:Historical Studies in Honor of Edward A. Dowey, Jr ed. by Elsie Anne McKee and Brian G. Armstrong (Louisville:Westminster, 1989), p. 137. "There is no central dogma because he is not primarily interested in, nor is he writing, dogmatics." 펫츠버그 신학교의 Charles Partee 교수는 칼빈 신학의 핵심은 "union with Christ"라는 주장을 평고있다. "Calvin's Central Dogma Again," The Sixteenth Century Journal, 18 (1987):191-199.

2. 1. 1. 성경을 통해서 얻은 지식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것인가? 칼빈은 두가지의 근거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우리는 참된 두가지 지식을 自然(nature)과 聖經(Bible)을 통해서 발견한다. 그러나 성경이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²⁰⁾ 기독교 강요의 제1권 제6장의 제목을 보면,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요, 선생으로서 필요하다"고 되어있고, 이 주제를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다.

칼빈은 성경 이상의 어떤 권위있는 근거란 없다고 본다.²¹⁾ 그는 "성경은 마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들이 들려지듯이,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라야만, 신자들 가운데 완전한 권위를 갖게 된다."²²⁾고 강조하였다.

2. 1. 2. 인간에 대한 이중적 지식-처음의 하나님의 형상과 타락 후의 상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더구나 그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지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

20) Herman Bavinck, *Doctrine of God*, tr. by William Hendriksen (Edinburgh:Banner of Truth Trust, 1977), p. 62. "Scripture itself contains the knowledge of God from nature and explains it at length." 바빙크의 신론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거가 역시 칼빈의 신학 구조와 대동소이하며, 성경의 중요성과 결정적인 증거에 대한 강조도 마찬가지이다.

21) 칼빈의 성경관을 다른 논문은 수없이 많다. John Murray, *Calvin on Scripture and Divine Sovereignty* (Grand Rapids:Baker, 1960). 짧은 학자들이 쓴 대표적인 두 논문을 참고할 것. Richard A. Muller, "The Foundation of Calvin's Theology:Scripture as Revealing God's Word," Duke Divinity School Review 44, (1979):19. Donald K. McKim, "Calvin's view of Scriptures," in Readings in Calvin's Theology, ed. by Donald McKim (Grand Rapids: Baker, 1984), pp. 53-66.

22) Institutes, I. vii. 1.

다. 이것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의 객관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취급해 버릴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인간 자신에 대한 지식도 역시 이중적이다. 즉, 우리가 처음 창조될 때 우리가 무엇과 같았던가를 아는 것이고, 다음으로 이담의 타락 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나를 아는 것이다.”²³⁾ 처음 창조의 때에 인간의 고상한 본성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여겨진다.

인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 졌다는 것이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가장 위대한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된 존재이다.

2.1.3. 하나님은 창조주

피조물이 있다는 말은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필연적으로 동반 한다. 이 창조주는 영원히 피조물보다 위대하다. 기독교강요의 제1권 제1장은 이런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깊이 숙고할 때마다 그분은 모든 자연세계를 지배하시며, 이를 통해서 우리들이 항상 그분을 우러러 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분을 부르고 경배하기를 원하신다는 점을 기억하자.”²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다. 특히 칼빈의 시편주석 78편은 우리의 이해의 수준에 까지 낮아지신 하나님의 계시를 잘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또한 성경을 통해서 자신에 관해 말씀해 주신다(롬 1:18절 이하).

23) Institutes, I. xv. 1. “This knowledge of ourselves is twofold: namely, to know what we were like when we were first created and what our condition became after the fall of Adam.”

24) Institutes, I. v. 6. “Let us therefore remember, whenever each of us contemplates his own nature, that there is one God who so governs all natures that he would have us look unto him, direct our faith to him, and worship and call upon him.”

2.2. 계시의 특성-인간 수준으로 낮아지심 (Accommodation)

2.2.1 인간의 수용능력(Human capacity)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해주는 가장 권위있고, 근본적인 근거가 성경이라면, 과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모든 지식과 모든 선, 모든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께서 훑어진 인간들과 의사전달이 가능할 것인가이다.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낮추셔서(accommodationg) 말씀하신다고 보았다.²⁵⁾

마치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가들이 서너살 된 아이들에게 설명듯이,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와 사고의 차원으로 낮아지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알게 하셨다.

칼빈은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서 자신을 “아버지”(Father)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바로 인간의 이해 범주에 낮아지심으로 본다. 우

25) F. L. Battles, “God Was Accommodating Himself to Human Capacity,” *Interpretation*(1977):19-38. “At the center of God’s accommodating Himself to human capacity, however, is His supreme act of condescension, the giving of His only Son to reconcile a fallen world to Himself. If accommodation is the speech-bridge between the known and the unknown, between the infinitesimal and the infinite, between the apparent and the real, between the human and the divine, the Logos who tended among us is the point from which we must view creation, the fall, and all history, before and since the Incarnation. For Calvin, in every act of divine accommodating, the whole Trinity - Father, Son and Holy Spirit - is at work” T. F. Torrance, *The Hermeneutic of John Calvin*(Edinburgh: Scottish Academia Press, 1988), p. 143. Clinton Ashley, “John Calvin’s Utilization of the Principle of Accommodation and Its continuing Significance for an Understanding of Biblical Language,” (Ph.D. dissertation, South-West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1972).

리는 아버지라는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다.

2.2.2. 성경의 특징

성경이 지닌 훌륭한 점 가운데 한가지는 이 책은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목동이나 농부들에게도 이해가 되어지며, 박사들과 같은 학식있는 사람도 들어서 공감을 느낀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원래 성경을 통해서 하브리어나, 헬라어, 아람어로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 언어에만 뛰어놓으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알게 하지 않으셨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자신의 상황을 떠나서 이 계시를 이해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은 성경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시사 독자들의 이해 수준으로 내려오셨다는 말이다.

2.2.3. 인간의 神智識의 확실성

칼빈은 우리가 가진 지식이 비록 하나님의 지식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우리가 가진 지식은 확실하다(authentic knowledge)고 강조한다.

우리 인간들의 이해능력에 맞춰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들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은 만족할 만한 계시를 볼 수는 없다. 우리들에게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것과 같은 계시를 주시지는 않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접하며,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 계시를 통해서 이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게 되어졌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파악하게 되어졌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그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시요, 우리를 지배하시는 주인이시다. 이 관계성을 알게 될 때에만, 비로서 인간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2.2.4. 인간 지식의 한계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시와 이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순수하고 확실한 지식이지만 칼빈은 하나님께서 모두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incomprehensibility of God).

칼빈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다고 강조하였다. “하나님은 자신을 날마다 계시하시며, 그의 만드신 자연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다”고 믿었다.²⁶⁾ 그러나 동시에 우리 인간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안다고 할 수는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아직 우리는 거울을 통하여 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심을 안다. 칼빈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지식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영생에 이르는 길을 그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셨다고 지적하였다. 이 모든 지식들이 성경에 쓰여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를 분명히 이해한다고 하지만, 완전히(fully) 깨달을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공부하면 점차로 많은 것을 더 잘 이해하게 되며, 성경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칼빈은 자신의 일생에 걸친 성경연구의 체험을 통해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성경의 깊은 심도를 온전히 깨우칠 수 없음을 절감하였다.

그가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점점 더 분명히 이해하게 되어졌음을 감사하면서도, 성경의 모든 지식을 다 알 수 없음을 알았던 것이다.

칼빈이 성경과 씨름한 좋은 예들 가운데 하나가 주기도문에 대한 설명중에 잘 드러나 있다.

26) Institutes, I. v. 1. 여기서 칼빈의 겸손이 잘 나타난다. 인간에 대한 편 하나님 비하가 아니라 진실에 대한 경외요, 자기 인식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말하려고 시도했을 때, 나는 이 기도문이 지난 가치 중에서 지극히 작은 일부만을 말하고 있음을 느꼈다. 비록 내 마음 속에 언어로 표현한 것을 넘어선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위대함에 있어서 내 마음은 압도되고, 정복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신비의 경이로움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 외에 남아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신비는 내 마음으로 깨우칠 수 없고,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음이 분명하다.”²⁷⁾

2.3. 경건-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윤리적 귀결

칼빈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의 관련성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깨달아 알고 난 후에, 이 지식의 최종 귀결점은 윤리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정립이라고 말한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게 될 때, 이로 인해서 그저 하나님에 저기에 계시다는 정도로 생각하거나, 그 분의 적합한 영광과 우리에게 적합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정도로 아는데서 그칠 것은 아니다. 결국 경건과 종교가 없이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²⁸⁾

여기서 칼빈이 말하는 경건(piety)이라든다, 종교(religion)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 용어이다. 그는 이 용어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 내에서만 이해되고 설명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율법과 규칙들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물론 이것이 전부일

27) Institutes, IV. xvii. 6.

28) Institutes, I. ii. 1. B. G. Armstrong, “The Nature and Structure of Calvin’s Thought,” pp. 55-58. 16세기 유럽에서 “종교”(Religio)라는 단어는 오늘날의 “기독교”(Christianity)로 이해하면 된다.

수는 없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추구하며 찾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삶은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 내에서만 가능하다.

특히 칼빈에게 있어서 “경건”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를 경외하는 것”이다. 베틀즈 박사는 경건이야말로 칼빈신학의 핵심이라 (the kernel of Calvin’s theology)고 확신한다.²⁹⁾ 베틀즈박사에 의하면 다음의 도표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확실하게 갖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되어진다.

칼빈이 말하는 기독교의 경건은 스토아 철학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경건이 아니다. 성령께서 성도를 부르시고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 속에서 이 경건은 능력있게 발휘되는 것이다.

성령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 그리하여십자가에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개인들에게 적용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개인들은 마음을 열게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성령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에 대해서도 바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은 성도들의 마음을 조명하여 귀기울여 듣고자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신다. 그리고 감동시킨다.

또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게 하는 성도들의 삶이다.

29) F. L. Battles, *The Piety of John Calvin: An Anthology Illustrative of the Spirituality of the Reformer* (Grand Rapids: Baker, 1978), p. 14..

결 론

칼빈신학의 구조를 요약해 보자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리문답이 가능해 진다. 다음은 베틀즈 박사의 해석에 토대하여 칼빈연구소 소장인 갤블 교수가 요약한 것이다.³⁰⁾

1. 참된 지식의 기초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다.

2.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는 성경을 통해서이다.

3. 성경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시이다.

4. 그 계시의 본질은 무엇인가?

피조물의 한계에까지 하나님께서 낮아지심이다.

5. 이상의 문답을 근거로하여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6. 인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7. 하나님과 인간을 아는 지식의 윤리적 귀결은?

참된 경건, 즉 참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30) Gamble, "Calvin as Theologian and Exegete," p. 185.

이런 일곱가지의 요소들이 칼빈의 전체적인 저술들 속에 핵심을 이루고 있다.

칼빈신학의 인식론적 출발점인 참된 지식의 이중성(Duplex cognition Dei), 즉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은 그 방법론이자 신학하는 사람들이 풀어야 할 첫번째 관문이었다. 칼빈은 이를 위해 중세 말기의 스콜라신학자들이나, 계몽주의 시대 이후의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인간의 사유나, 자연으로부터 해답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경에서만(Sola Scrputura)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 이유는 성경만이 참된 특별계시이기 때문이다.

칼빈 신학의 특징은 성령과 성경과의 관계를 강조하여 바른 성경 이해를 도출한데서 나타난다. 성경은 교황이나, 교회의 설명과 선언으로 규제될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과 함께(cum verbum) 역사 한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발견할 수 있으며,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칼빈을 성령의 신학자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서도 나타난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알게 된다. 우리의 지식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의 지식이다. 우리의 신학도 피조물의 신학이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한 우리는 그분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된다. 우리는 그분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다. 특히 우리의 구세주요, 창조주이심을 말할 수 있다.³¹⁾ 그러나 하나님과 영광의 충만하심에는 이르지 못한다. 우리의 이해 능력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해야 하며, 살아있는 경전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경홀히 불러서는 안된다.

31) 기독교 강요의 제 1권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제 2권은 구속주로서의 하나님이다.